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 10년간 7500가구 정착



전북 고창군은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다.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최근 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창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지난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복분자와 수박, 멜론, 고추, 풍천장어 등 브랜드 가치가 큰 농특산물도 풍부한 덕에, 영농에도 이점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1405가구(2332명)의 사람들이 고창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10년간으로 보면 총 7501가구(1만 1853명)가 고창군에 새롭게 정착했다. 고창군이 귀농·귀촌 최적 지역으로 성

장하게 된 데엔 지자체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전담 부서도 설치했다. 귀농인 영농정착금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 귀농·귀촌학교와 마을환영회, 귀농·귀촌 멘토 지원 등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고창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6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 거점과 창업메카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모든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혜선 조선비즈 기자

'대한민국 녹색유포'에서 '힐링 관광도시'로 명성



충북 단양군은 소백산과 남한강의 청정 자원에 기반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편안한 휴식'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대한민국 녹색유포'를 2008년부터 도시 브랜드로 선보이고 있다.



단양군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있어 옛부터 '단양팔경'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다. 조선 중기 대표 학자인 퇴계 이황은 단양의 명성을 돌아보고 '단양산수기유사속기'라는 기행문을 짓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선비들이 금강산 다음으로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기도 했던 곳이다. 최근 들어서도 단양군에 대한 명성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유포' 브랜드가 의미하는 대로 산과 하천이 어울려 보

여지는 풍경과 역동적인 환경은 도시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남한강 래프팅과 양방산 및 두산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특히 강산 다음으로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기도 했던 곳이다. 최근 들어서도 단양군에 대한 명성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녹색유포' 브랜드가 의미하는 대로 산과 하천이 어울려 보

레포츠 시설인 질라인과 알파인코스터 등을 갖춘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수양개 생태공원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완공해 '힐링(heal-being) 관광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관광과 휴양을 고루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힐링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고은 조선비즈 기자

행복한 공동체 목표... 인문학 마을 사업 24곳 진행



경북 칠곡군은 2013년부터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칠곡군만의 인문학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지난해에는 24개 마을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칠곡군이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10년 넘게 추진해 온 평생교육 바탕 위에 추진되고 있다. 이웃 간 소통과 공감을 유도해 활기 있는 농촌을 만들고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왜관을 금남리의 '아버지요리교실'과 북삼읍 어로1리의 '보람할매연극단', 석적읍 부영아파트의 '다정다감 공동체' 마을 콘텐츠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행복마을콘테

스트'의 대통령상과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3.0 거점 지자체 사업'에 선정돼 고령군에 전파되

기도 했다. 칠곡군과 고령군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단계인 마을리더 교육을 진행했다. 칠곡군 인문학마을협동조합이 고령군 마을리더 교육을 맡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칠곡군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다른 시·군에도 칠곡군의 인문학 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인문학 사업과 연계된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 칠곡군을 살기 좋은 문화교육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전체 83%가 산림... 수목원·휴양림 등 관광자원 다양



경북 봉화군은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휴양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목원과 휴양림 등은 물론, 협곡열차와 트레킹 코스, 산악레포츠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 국비 2200억원을 투입해 만들어지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그 예다. 전시와 연구, 휴양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수목원으로, 지난해 9월 임시 개장했으며 올해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체 면적은 5179ha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와 봉화 자연휴양림 역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백두대간과 낙동강 상류 절경을 활용해 조성·운영 중인 중부내륙 순환열차와 백두대간 협곡열차 및 산타마을도 빼놓을 수 없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지난 2015년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15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

기도 했다.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는 전국 최초의 산림탄소순환마을이, 봉성면 창평리에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외씨버선길과 낙동강메트레일, 낙동강세평하늘길, 봉화숲길길래길 등도 만들어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봉화군의 청정 자연이 담긴 관광자원을 계속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도시 봉화군'을 만들어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조선비즈 기자

미래 대체자원 각광 해조류, 신성장동력으로 알려



전남 완도군의 '2017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는 미래 대체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조류의 유용한 가치를 알리고, 신(新)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 '제7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국제행사 부문에 선정됐다. 박람회는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항과 해변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6개의 전시관과 해조류 체험장,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제관인 바다신비관과 건강인류관, 미래자원관은 해상전시관으로 운영되는데, 국내 최초로 360도 워터스크린을 통해 해조류의 역사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방문객들이 바닷속 해조

원을 위한 복합양식' 등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파괴된 해조숲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도 함께 진행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조직위원장)는 "해조류가 미래식량과 에너지, 건강 등 대체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산업박람회가 될 것"이라면서 "미주와 유럽 등 해조류 신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혁 조선비즈 기자

심평원 실시 '뇌졸중 적정성' 10년째 1등급 평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2017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개원 62년을 맞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톨릭 정신에 따라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질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15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뇌졸중 적정성 1등급 평가를 지난 10년간 놓치지 않고 받았다. 위암과 대장암, 폐암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인천·부천 지역 최초로 심장암과 폐암에 대한 동시 로봇수술을 성공했고, 250번째 로봇수술도 진행했다.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및 심장·신장 다장기 동시이식도 진행하는 등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를 개인 맞춤형 암 치료에 적용하고 있어 효과와 정확도는 높고 부작용은 줄여 환자의 치료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올해 말 국내 최초로 뇌전증병원을 개관할 예정이

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뇌 질환 질향상부터 뇌종양과 기능성 장애 등 뇌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 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뇌질환 진료시스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낸다는 게 병원 측의 계획이다. 이상빈 조선비즈 기자

30년간 매출액 10%, 자연친화적 생활용품 개발 투자



액체세제 '피죤 액츠'는 '피죤'의 오랜 기업 목표인 '리퀴드 사이언스(Liquid Science)'가 낳은 대표 히트 상품이다. 피죤은 30여년간 매년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자연친화적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피죤 액츠는 순식물성 원료인 자몽과 유자, 유클립투스 등이 함유된 친환경 세제로,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에게도 안전한 제품이다. 세척력과 용해성은 물론, 재오염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추가 헹굼을 줄일 수 있고, 찬물에 잘 녹는 장점도 있다.

원한 세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피죤은 만 13세 이상 1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 성분을 분석했다. 그 뒤 세계 주요 식품 및 생명공학 관련 기업에 납품되는 '7종 청정 효소'를 첨가해 한국음식 때 제거에 최적화된 세제를 완성했다.



액트 퍼펙트솔루션은 육류 등 단백질 위주 오염원은 물론, 한식과 중식에 많이 첨가되는 전분에 강한 세척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사 타 제품보다 259% 고농축된 제품으로, 적은 양을 사용해도 세척력이 뛰어난 편이며 경제적이다.

인체에 해로운 벤조피렌 등 10가지 불질이 포함되지 않았고, 순식물성 원료가 첨가돼 소비자의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한 제품으로 평가된다. 김수현 조선비즈 기자

'빌라엠' 가장 사랑받는 와인브랜드 6회연속 수상



종합 주류기업 아영FBC의 이탈리아 와인 브랜드 '빌라엠(villa M)'이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와인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6회 연속 수상이다.



빌라엠은 1997년 국내 유일의 모스카토 와인으로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빌라엠은 그동안 다른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저변을 넓혀왔다. 2005년에는 브랜드 네임을 '빌라 모스카텔'에서 '빌라엠'으로 변경해 당시 와인을 어려워하던 소비자들에게 쉬운 이름으로 다가갔다. '프로포즈용 와인'이라는 콘셉트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달콤한 맛과 청량감이 일품인 빌라엠은 밝은 황금 색상을 띤 발포성 와인이다.

이탈리아 북서부 지방의 피에몬테(Piemonte) 지역에서 생산된 모스카토(Moscato) 포도 100%로 만들어졌다. 부드러운 은은한 기포가 있으며, 아카시아 등이 떠오르는 달콤한 흰꽃 향기와 잘 익은 과일 향이 매력적이다. 빌라엠은 국내 판매 700만병 돌파를 기념해 프리미엄 라인 '빌라엠 골드' 론칭을 준비 중이다. 올해 여름 론칭 예정인 빌라엠 골드는 소비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름에 걸맞는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영FBC는 1987년 국내 와인 시장 민간 개방과 함께 설립된 와인 전문 1세대 기업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미국, 칠레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와이너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 와인 바이 효시인 청담동 베라짜노를 운영하고 있다. 최문혁 조선비즈 기자